

소병철·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 '맞손'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골자 법안 각각 발의 蘇 "전남 발전, 농어업 외에 새로운 동력 필요" 金 "남해안, 신산업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 저점"



소병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소 의원은(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 의원(여수)은 4일 '남해안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

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 화학산업(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

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또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이제 농업과 어업 뿐만이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론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도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 신해양 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 '공수전환' 모색

'돈 봉투·코인' 악재 털고 전통적 지지층 결집 시도 '언론장악' 비판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 (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중심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테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비판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날레마에 빠져 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문제도 여전히 '불씨'다.

지난달 14일 쇠신 의회에서 결의한 당 혁신기구 설치는 3주째 진척이 없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려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진명(진이재명)계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뒤편 상임위원장 선출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원내대표나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선출이 보류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기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안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원들이 제기한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요구 청원엔 전날 기준 6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철회해야"

민주 탄중위, 한전·에너지공대 방문 "학습권 침해 안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을 향한 방문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신장훈·이병훈·이용빈·김경만 의원 등 소속 위원들은 지난 1일 한국에너지공대 방문해 출연금 축소와 관련한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일정은 박찬환 전남도 정부 부지사과 윤병태 나주시장도 함께하며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날 윤의준 총장을 비롯한 에너지공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에서 학교 측은 "한국전력 출연금이 대폭 삭감될 경우 기존 캠퍼스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학사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신기술 육성과 우수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탄중위 위원들은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

면하는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학교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이준호 한국전력 안전사업부사장 등 한전 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심을 곡식 씨앗은 남겨두는 법"이라며 "한전의 별씨는 에너지 공대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출연금 지원에 당연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 역시 "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전이 중심을 잡고 객관적 기준을 갖고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이용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이 반드시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호 한국전력 부사장은 "한국에너지공대 건립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진수기자



www.slhealth.co.kr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료기 PFC-7900</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료기 JP-870</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기기인증</p> <p>주요기능 : 4D마사지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헬스케어 SF-5100</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 감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종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하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롤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헬스케어 SF-5000</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하팅 마사지 / 움직임 감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